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위기

## 발생 한달여만에 총기 포획 결정

### ASF 방역, 농식품부 일원화해야

DMZ(비무장지대) 철책 이남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이 확인되면서 야생동물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13일 군저격수와 민간 협력을 통해 민통선 이북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계획적 총기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한달여 만이다.

환경부는 최근까지 14개 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도 야생멧돼지의 전염 가능성을 일축하며 총기 이용 등 적극적인 포획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하면서 야생멧돼지의 전파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부터 삼위 포식자가 없는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감염 개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 사살 등을 통한 포획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올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접경지대 전파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포획대와 포획트랩 설치 확대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뤘다.

또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에서 감염된 사례가 나왔음에도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다. 발생 농가 대부분이 창문조차 없을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부와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 공장과 같은 환경의 축사에 야생멧돼지가 접근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야생멧돼지로부터 왔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환경부의 자세에 양돈농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사육돼지 관리하는 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는 환경부가 주무부처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환경부는

고유 업무인 생물다양성과 보호를 빌미로, 야생 멧돼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멧돼지 ASF 방역관리 업무를 수의방역 업무부서인 농식품부로 즉각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줄지어 선 수매 행렬 1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미곡처리장(RPC)에서 추수한 벼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수매를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약, 값비싼 일본산 검증 없이 사용

‘밀베멕틴’ 1kg 당 51만원...최대 35배 더 비싸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최근 10년간 4602억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발생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약제를 사전검증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1kg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 ‘밀베멕틴 2%’, ‘아바멕틴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등 총 4 종류이다.

이 중 아바멕틴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t을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밀베멕틴에 대해 “국내에 등록돼 판매 중인 농약 중 효과가 의심될 경우,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자체실험을 실시한다”고 시험의 목적을 밝혔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멕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약제를 값비싸고 효과도 검증 안 된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약제 개발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 만취난동 50대, 귀가 권유 경찰관도 폭행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머리를 다친 50대가 응급처치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B경위(42)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지고 B경위의 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119구급대와 함께 A씨 머리에 난 2cm 가량의 열상을 구급조치한 뒤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다가 폭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한 후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 베트남 유학생 자전거 들이받은 60대

13일 오후 2시27분쯤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교차로에서 A씨(67)가 몰던 모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베트남 국립 유학생 B씨(21)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앞차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콘센트 꽂아 둔 헤어드라이어에서 불

13일 오후 1시9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콘센트에 꽂아 둔 헤어드라이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헤어드라이어에 있던 화장실 내수가 그을리고 거울이 깨지는 등 소방서 추산 31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50·여)는 이날 오전 드라이어를 사용하려다 작동이 되지 않자, 전원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는 콘센트에 꽂아둔 채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아들이 화장실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자 소방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고데기, 헤어드라이어 등은 전원을 끈 후 플러그까지 뽑은 후 보관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헤어드라이어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천안서 40대여성 극단선택 소동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약 3시간동안 극단적인 선택 소동을 벌였다.

14일 오전 11시 59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숙박업소 6층 난간에 A씨(40·여)가 매달린 채 극단적인 선택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누군가가 날 잡아가려 한다”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기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가운데 A씨가 한눈을 판 사이에 숙박업소 내부로 구조했다.

## 대구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사고

대구의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4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0분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사(38)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경사는 전날 여수에서 모임에 참석한 후 다음날 아침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